**제이머시**

오랜만에 소식 전합니다.

평안하신지요 ? 어지럽고 불확실한 세상에 살면서 평안하기란 쉽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만이 누릴수 있는 , 세상이 알수 없는 평강이 우리모두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교회**

교회는 말씀을 기초로 말씀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새로오는 새 신자들 ,새롭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헤만 이라는 사람의 가족이 교회에 등록해서 열심히 믿음생활 하고 있습니다.

헤만과 그의 동생가족 ( 아내와 사랑스런 3 아이들 ) 그리고 우마 자매님이 예수님을 영접 했습니다.

작년에 세례를 못받은 지분 형제님은 2월에 세례를 받았고 우리 아들 어물려는 기숙사 학교 가기 전에 8월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컨퍼런스와 세미나들**

10월엔 우리 에어리아의 사역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RENEW AND REFRESH 라는 주제로 코로나 이후의 3년만에 열리는 컨퍼런스 였습니다.

모임을 갈급해 하는 사역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충전과 쉼과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우리를 얼마나 격려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10월 중순에는 여성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모여서 회복하고 치유하는 시간들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이곳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나라의 세움 임을 아는 우리는 한 사람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어린이 사역**

올해 슬럼지역에서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단체 사역자들과 이야기 하고 아이들 사역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의 살뜰한 케어가 없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서 찬양 율동 후에 성경말씀 전한후 영어와 수학을 간단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크레프트와 게임을 합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행복해 합니다.

상황상 아이들은 1주일에 한번씩 만납니다. 그러나 긍휼사역 팀들은 매일 그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복음을 들으며 행복하게 잘 자리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라소식**

나라의 여러 소식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은 우리들에게 나라의 정책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최근 또 다시 법이 바뀌어 크리스챤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거나 개종 시키는 것을 보는 사람은 경찰에 보고 할수 있으며 보고당한 사람은 벌금 800만원과 함께 10년 동안 감옥에 가게 됩니다.

또한 신고를 한 사람은 또한 80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눈을 크게 뜨고 신고할려고 애를 쓰겠습니까...인도에서 800만원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돈이 거든요..

그 동안도 이런저런 핍박과 간섭들이 있어왔는데 이제는 더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올 해에도 라자스탄과 자이풀 데라둔 여러곳에서 여러 선생님들에게 어려운 시간들을 옆에서 보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어려운 시간이 올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은 끊어지지 않고 전해지지만 상황들로 인해 편안하게 전할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수 있도록 함께 기도에 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훈련

올해는 훈련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무척 바쁜 한해였습니다.

내년 1월에 디티에스 훈련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지혜롭게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훈련을 하길 원합니다.

보호해 주시고 변화가 있는 훈련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비자**

비자 또한 핍박과 떼어 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젠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없어서 관광비자를 받았습니다. 3개월씩 2번만 인도에 머물수 있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나라밖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인도에 없는 시간들은 네팔에 머무를 생각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건강에 조금의 적신호가 왔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겨울이 오니 너는 어서 내게 오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구절을 기억합니다.

겨울은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을 맞이하면서, 추위를 대비 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영을 무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도에서 장순희 드림

**기도제목**

1. 날마다 묵상하는 주님으로 안정감있고 평강하기를

2. 1월에 시작하는 디티에스 훈련을 위해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하길 또한 보호해 주시길 , 그럼에도 복음이 전파되길
4. 아들 어물려의 신앙과 학업 ,건강을 위해
5. 우리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도록.